기획 · 자료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이상경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 말기 임순득의 작품을 통해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식민주의 국가의 문제를 구명하는 것이다. 일제 말기에 발표된 임순득의 작품은 자의든 타의든 식민주의에 협력하는 작품을 발표한 다른 많은 작가들과는 달리, 문자나 장르에 관계없이 친일적이거나 시국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

임순득의 소설 작품은 그의 여성문학론과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다. 그는 일제 말기 남성 중심의 문단이 만들어낸 '여류문학'을 비판하고 여성작가 또한 남성들이 만들어준 '여류작가'의 공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방을 지향하는 '부인문학'을 건설하자는 여성해방문학론이다. 그의 소설 역시 '여성해방문학'으로서, 끝까지 식민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방된 여성의 삶을 모색했다.

이러한 임순득의 독특한 입장은 단지 작가 임순득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나온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특히 학생운동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임순득은 이들 여성의 문학적 대변자로서의 면모를 가진다.

등단 작품인 「일요일」은 일제하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인을 옥바라지하는 여성 화자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주장하고 전향해 가는 세태를 비판

했다. 하지만 여성 화자가 남성 애인을 생활과 사상의 절대적 지주로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아직 미약하다.

일본어 소설 「대모」에서는 조카의 이름을 민족해방에 헌신한 모세와 지조를 지키다 자살한 굴원의 이름을 따라 '세원'으로 짓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에게 있어 이름과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행동을 보이는 남성이라도 여성이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역설하면서 민족해방과 여성 해방의 상호 연관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처럼 일본어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대모」는 여성문학이 지향해야할 목표로서의 인간해방을 분명하게 제시한 작품이다.

이러한 임순득의 여성문학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문제에 치중하거나 계급 문제의 틀 속에서 여성문제를 보았던 그 이전 여성문학과는 달리 계급문제를 포괄하는 민족해방의 문제와 여성 해방의 문제를 통합된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시기 '여성성'을 추구한 '여류문학'이 친일 문학으로 귀결한 것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점에서 임순득의 문학은 해방 전 우리 여성 운동과 여성 문학이 도달한 지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성과이다.

핵심어: 임순득, 일요일, 대모, 여성문학, 친일문학, 민족과 여성, 계급과 여성, 사회주의 여성운동, 여류작가

1. 머리말

일찍이 필자는 우리 근대문학 최초의 여성평론가로서 임순득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힌 바 있다.[1] 1930년대 후반, 남성 중심의 문단에 순응하는 '여류문학'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방을 지향하는 '부인문학'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임순득의 비평은 우리 근대문학 최초의 자의식적이고 자생적인 여성해방비평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여류문학'이 일방적으로 운위되던 당시의 문단 상황에서 어떻게 임순득이 거의 '독불장군' 처럼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의

1) 이상경,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계간 한국문학평론」 1999년 여름호,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에 수록.

성장 환경, 지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여서 매우 미진하고 부정확한 연구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 필자는 한글 신문 잡지가 폐간되고 친일이 강요되던 일제 말기 임순득이 일본어로 쓴 소설들을 보게 되고 또 임순득의 가족 환경과 지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을 찾음으로써 그런 의문을 일부 풀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 해방 전 임순득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단편소설)「일요일」『조선문학』 1937.2.
(평론)「여류작가의 지위 - 특히 작가 이전(以前)에 관하야」,『조선일보』 1937.6.30-7.?
(평론)「창작과 태도 - 세계관의 재건을 위하여」,『조선일보』 1937.10.15-10.20.
(평론)「여류작가 재인식론 - 여류문학 선집 중에서」,『조선일보』, 1938.1.28-2.3.
(수필, 일본어)「늪의 이라라풀에 부침(원제는 澤のいらら草に寄せて)」『國民新報』 3 (1939.4.16)
(수필)「타부의 변」,『조선일보』, 1939.5.17.
(수필)「작은 페스탈로치」,『매일신보』, 1939.11.5.
(수필)「오하(吳下)의 아몽(阿蒙)」,『매일신보』, 1940.1.7.

---

2) 이 목록은 잠정적인 것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작품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목록 중 임순득이 일본어로 발표한 소설의 존재는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자인 오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교수와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교수가 함께 펴낸『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綠陰書房, 2001)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6권으로 펴낸 이 작품집에 국내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많은 일본어 작품들을 찾아서 수록함으로써 한국문학 연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평론)「불효기(拂曉期)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 『여성』 1940.9.
(단편소설, 일본어)「대모(代母, 원제는 名付親)」, 『文化朝鮮』, 1942.10.
(단편소설, 일본어)「가을의 선물(원제는 秋の贈り物), 『每日寫眞旬報』, 1942.12.
(단편소설, 일본어)「달밤의 대화(원제는 月夜の語り)」『春秋』 1943.2.

1937년 소설 「일요일」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온 이래 임순득은 해방 전까지 비평뿐만 아니라 소설도 발표했다. 물론 수필도 썼다. 현재까지 찾은 소설은 비록 4편이지만 더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

일제 말기, 위의 목록상에 나타난 1937년부터 1943년까지의 임순득의 작품은 문자나 장르에 관계없이 친일적이거나 시국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소위 우리 문학의 '암흑기'라고 불러온 시기인 1940년대에 발표된 임순득의 일본어 작품은 그가 쓴 여성문학에 관한 평론과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는 '여성해방문학'으로서, 끝까지 식민지 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방된 여성의 삶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당시 '여류다운 여류'로서 칭송받은 최정희 식의 '여류문학'이 친일 문학으로 흐른 것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또한 이러한 임순득의 독특한 입장은 단지 작가 임순득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나온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특히 학생운동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한 여성 활동가들의 대변자로서의 면모를 가지는 것으로, 그 동안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던 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활동가들의 삶에 접근해 들어가는 통로로서 근대 여성사에서도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의를 가지는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 지적 성장의 배경

1) 가족 환경, 특히 오빠 임택재(任澤宰)

필자는 전에 썼던 임순득에 관한 논문에서 임순득이 1915년 경 원산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3] 여기서 바로 잡는다. 임순득은 1916년 2월 12일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고 본적은 전북 금산군[4] 금산면 상옥리 81번지로 되어 있다. 임순득의 행적을 알려주는 자료는 일제가 작성한 '신상기록카드'이다. 일제는 경찰에 검거된 인물에 대해 사진을 찍고 신상 기록카드를 작성했다.[5] 임순득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때 학생동맹휴학을 주동한 혐의로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때 일제의 경찰이 작성한 신상기록카드와 사진이 남아 있어 임순득의 젊은 날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강원도 고성이나 원산 쪽은 결혼한 뒤 살게 된 곳인 듯 하다.

아버지는 한의사였고 그런 만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임순득도 여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 정도였다.

임순득의 오빠에 대해서는 사상운동에 관계했던 것 같고 예방구금소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했는데[6], 이번에 그 오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밝힐 수 있었다.

임순득의 오빠는 임택재(任澤宰, 1912-?)이다. 그는 전북 고창 출신[7]으로

---

3) 이상경, 『근대여성문학사론』, p.228면.

4) 금산은 지금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5) 8.15 이전 조선총독부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일제의 경찰이 작성한 신상 기록 카드 중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등에 걸렸던 인사들에 관한 것만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총 9권으로 영인해 내었다. 임순득에 관한 자료는 이 책 제 7권에 실려 있다.

6) 이상경, 앞의 책, p.228.

7) '신상기록카드'에는 임순득과 오빠 임택재의 본적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고창고보를 졸업하고 1929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구찌(山口)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931년 여름 방학을 맞아 귀향하던 중 전북 금천군 예수교 성결 교회의 설교 방해 사건으로 금산서에 검거되었다 풀려났다. 일본에서 반일 격문을 배포했다가 1932년 3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야마구찌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다. 귀국하여 1932년 10월 경에는 서울에서 이관술(李觀述) 중심의 '반제 동맹'에 참가했고 이 일로 해서 1933년 1월 종로 경찰서에 검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 이재유(李載裕) 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다가 1934년 3월 '미야께(三宅) 교수 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1935년 12월 경성 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8]

임순득의 오빠가 임택재라고 하는 사실은 임택재의 재판기록에 "동덕여학교 생도인 자기 여동생 임순득을 매개로 하여 동덕여학교 학생 중에 동지를 획득할 것"을 도모했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9] 이 재판을 받은 이후의 임택재의 행적을 알려주는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임택재가 속했던 그룹 사람들의 이후 행적과 임순득의 소설을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사상 운동에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오빠의 삶은 4살 아래인 임순득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전적 요소가 짙은 등단작 「일요일」과 해방 후의 작품 「우정」(1948.12)에는 사상 운동과 관련해서 고초를 겪은 오빠의 삶이 묘사되고 있다. 한 여성이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후원자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오빠의 존재는 여성사에서 그리 드물거나 낯선 것은 아니다.

---

8)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pp.402~403.

9) 1935년 12월 20일자 임택재에 대한 재판기록 「昭和10年 刑公 第1230, 1231, 1232, 1233號 判決」 p.42.

2) 이화여고보의 학생 동맹휴학과 반기독교 운동

임순득은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마친 뒤 1930년경 서울로 와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바로 직전인 1929년 11월 3일에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임순득이 시골에서 서울로 왔을 때 곳곳의 학교에서는 학생동맹휴학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종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활발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임순득은 1931년 6월 25일 오전 8시 이화여고보 학생 2,3,4학년 백여 명이 벌인 학생동맹휴학 사건에 조숙현(趙淑顯)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되어 서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 학계의 파란이 첩출하는 이 때에 시내 정동(貞洞)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高)에서는 25일 오전 아홉시 오분 경에 동교 삼년생 모(某)가 전교 학생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2, 3, 4학년생 약 3백여 명은 수업을 거절하는 동시에 휴게 시간이라 하여 교정에 모여 협의를 거듭하고 삼삼오오로 교내를 순회하다가 각기 해산하였다는데 요구 조건은 1.종교 신앙 자유권을 요구함, 1.교원 4인 배척, 1.교수 시간을 6시간으로 결정할 것, 1.현 교육제도 반대 등이라 하고, 교수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하여달라는 것은 동교가 미션 스쿨인 만큼 기독교를 강제로 신봉케 하는 까닭이라 하고, 교수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하여달라는 것은 동교가 역시 종교 학교이므로 정과 외에 성경 과정이 있어 부담이 과대한 것이라는 바, 소관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동 급보를 듣고 사,오명이 출장하여 주모자와 이면의 조종자를 엄탐(嚴探) 중이라 한다.[10]

이 사건으로 이화여고보는 7월 2일까지 임시로 휴교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요구 조건에 대해 26일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 학생들도 강경해져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까지 퇴사하면서 휴교는 더 연장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개입하여 학생들을 체포해 갔다.[11] 이화

10) 「이화여자고보 3백명 동맹휴학, 서대문 경찰은 주모자 엄탐, 신교(信敎) 자유 등을 요구」, 『조선일보』, 1936.6.26.

여고보의 학생맹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사가 나지 않다가 1931년 9월 2일 발표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 사건'에 이화여고보의 학생맹휴를 조종한 혐의로 조숙현[12]이라는 당시 19세의 이화여고보 4학년 학생이 송국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13]

이 사건들의 보도에 임순득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임순득과 조숙현의 '신상기록카드'가 남아 있어 비교해 본 결과 두 사람은 동일한 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카드에 임순득의 주소는 경성부 정동 34번지로 되어 있다. 조숙현은 4학년생이고 임순득은 그보다 나이가 두 살 적으니 2학년 정도 하급생이었을 것이다. 동맹휴학 사건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서대문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은 결과 조숙현은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회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고 임순득은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임순득은 17살 이화여고보의 학생으로서 학생동맹휴학을 주도했다가 퇴학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흔적은 임순득이 해방 후에 발표한 소설「4월의 축가」(1948.4)[14]에 남아 있다. 해방 후 여학생들의 기념식 행사장에서 소설 속의 화자 '나'는 과거의 여학생 시절의 고초를 회상한다. "내 지금의 절반 나이

11)「이화여고 맹휴 첨예화, 이사회에서는 요구를 기각, 의연히 수업을 거절」,『조선일보』, 1931.6.27.;「맹휴생은 경찰에, 학교는 휴학 연기, 7월 6일까지 휴학 연기, 이화여고 사건 속보」,『조선일보』, 1931.7.2.

12) 일제 경찰이 작성한 '신상기록카드'에 의하면, 조숙현(趙淑賢)은 1914년 7월 5일생이다. (본적은 황해도 瑞興군 松禾면 新幕리 26번지, 태어난 곳은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율실리 299번지) 1931년 8월 30일 현재의 주소는 경성부 정동 32번지이다. 이곳은 당시 이화여고보가 있던 곳이며, 지금도 이화여고가 있다.

13)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를 조직했다는 사건은 이윤혁, 송도호, 허정숙, 정관진 등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나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회를 조직한 뒤 웅기, 안변 등에 '야체이카'를 조직하게 하고 그밖에도 학생부와 노동부 등을 설치해 공장에도 뿌리를 박고, 이화여고보의 맹휴도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재건준비회 관련자 중의 누군가와 조숙현의 관련이 드러나자 한꺼번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14) 임순득 작품집,『잊을 수 없는 사람들』(평양: 조선여성사, 1955,) pp.181~187에 수록.

도 못 되던 시절, 내가 아끼고 따르던 중의 한 사람 -- 광주 학생사건을 겪은 이듬해 역시 봄철이었다."로 시작되는 회상은 그 친구의 오빠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개나리, 옥매화, 철쭉이 얼크러진 꽃그늘 잔디밭"동산에서 읽다가 예배를 보러 가야하는 기숙사 사칙을 어긴 것이 교장 선생에게 발각되어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 받은 경험으로 이어진다. "검은 차일처럼 우리를 내려 덮듯 굽어다 보고 섰는 것은 장대 귀신같이 키가 휘끈 큰 미국인 여교장 미스 홀이었다."로 묘사되는 교장은 당시 이화여고보의 교장 A.B. 홀을 가리킨 것이리라. 소설에서는 함께 끌려간 친구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회상하는데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소설화된 허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930년에도 이화여고보 학생들은 광주학생사건의 여파로 학생시위를 벌였고, 1931년에는 학생 맹휴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화여고보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학생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임순득이 시골에서 올라와 여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분위기는 시위와 학생동맹휴학으로 반일 감정과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높은 때였던 것이다.

이미 오빠 임택재는 일본에서 돌아오다가 금산에서 교회의 예배 방해 사건으로 검거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기독교의 보수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때이다.

3) 동덕여고보의 사회주의적 분위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이화여고보에서는 퇴학을 당한 임순득은 동덕여고보에 편입했다가 다시 퇴학당했다.[15] 동덕여고보에는 이관술[16]

15) 임순득이 동덕여자고보에 입학했다가, 1933년 독서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종로서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오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편, 「해설」, 『근대조선문학일본어작품집 (1939-1945) 창작편 6』(綠陰書房, 2001)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16) 이관술(1902-1950)은 경남 울산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동경고등사범 지리역사과를 졸업하고 1929년 4월 동덕여고보 교사가 되어 1932년 10월 동덕여고보 재학

이 지리 및 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국어학자인 신명균(申明均)[17]도 있었다. 이화여고보를 퇴학 당한 임순득이 동덕 여고보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인지도 모른다. 당시 사립 여고보 중 진명과 숙명은 일본인 경영의 학교였으니 맹휴에 관련되어 퇴학당한 임순득으로서는 입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신은 이화처럼 기독교 학교였다. 이화의 기독교 교육에 반대하고 나온 임순득으로서는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여고보들과 비교하면 동덕여고보는 일찌기 천도교가 교주였던 적이 있으며, 여고보로 승격할 때도 천도교 측에서 보증을 섰다고 한다.[18] 그런 만큼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이관술이나 신명균 같은 이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찌기 강경애도 평양 숭의여학교의 기독교 교육 강요에 반발하여 벌인 맹휴와 관련하여 퇴학당하고 1923년 이 동덕여학교에 1년 정도 몸을 담았던 적이 있다.

이런 동덕의 분위기는 독특한 것으로, 1930년대에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여성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 여성활동가들—이순금(李順今, 1912 – ?, 1932년 3월 졸업), 박진홍(朴鎭洪, 1914– ?, 1931년 6월 퇴학), 이경선(李景仙, 1914 – ?, 1933년 3월 졸업), 이종희(李種嬉, 1912– ?) 등 —이 모두 동덕여고보 출신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동덕여고보의 학생으로서 이관술이 지도하는 독서회의 멤버들이었다.

생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독서회를 지도했다. 1933년 1월 '반제동맹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1934년 3월 병보석으로 가출옥했다. 1934년 9월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던 이재유와 연결되어 활동했다. 조공재건 경성준비그룹 간부, 경성콤그룹 조직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1년 1월 검거되었다. 1942~43년 경 출옥하여 비밀 지하 활동을 계속하다 해방을 맞았다. 강만길 · 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 운동 인명사전』, pp.315~316.

17) 신명균은 국어학자 이윤재의 뒤를 이어 동덕여고보의 조선어 교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조선어학회의 핵심 구성원이 된다. 노촌 이구영 선생은 자신이 1930년대 말엽 서울의 신명균의 집에서 열리는 한글 강습회에서 임순득을 만났다고 회고하고 있다. 심지연,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소나무, 2001), p.268.

18) 동덕70년사 편찬위원회 편, 『동덕 70년사』 (동덕여학원, 1980), pp.90~102.

이관술은 동경고등사범를 졸업한 직후인 1929년 4월 동덕여고보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의 인기와 선망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울산에서 수만의 자산을 가진 부호의 아들로서 일본 유학을 마친 미혼의 교사라는 점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었으며, '친절하게 좌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 매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담당 과목인 지리와 역사 이외에 특별활동으로 운동부를 맡아 스스럼없고 소탈했던 그에게 학생들은 '물장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관술은 학교 내에서 이순금, 박진홍, 이종희, 윤금자, 김길순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19] 이순금은 이관술의 동생이기도 했다.

동덕여고보 출신의 여성들은 학교를 나온 뒤에도 이재유 그룹에 속하여 수 차례 검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활동을 벌였다. 박진홍이 1931년 6월 학생 맹휴의 주동자로 퇴학당했을 때 동덕여고보의 교사 중 2,3,4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박성환(朴聖煥), 이관술, 신명균 세 사람은 학생들의 처벌에 항의하여 사표를 내었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반려된 바 있다.[20]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았고 학생들에게서 신망을 얻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임순득이 1931년 이화여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동덕여학교 2학년에 편입했을 때, 이관술은 교사로 그곳에 재직하고 있었고 이순금과 이경선이 4학년과 3학년 선배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덕여고보의 분위기 속에서 임순득은 자연스럽게 지적 단련을 해갔을 것이다.

임순득은 동덕여고보 4학년을 1학기 마치고 1933년 7월 전후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로 보면 사상 문제에 관련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로 알 수 있다.

---

19) 김경일, 『이재유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3), pp.161~162.

20) 「처분 학생으로 새 선생 사임 – 처벌된 생도의 복교를 요구하여, 동덕여교 분규後報」, 『매일신보』 1901년 6월 26일자. 2,3,4학년 담임이었던 세 사람 중 박성환은 여자로서 재봉, 도화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

부내 동덕여고보에서는 수일 전 4년생 2명이 사상문제에 관련되어 경찰에 피검되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하였는데 동교 4년생 일동은 학교 당국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다 하여 동맹휴학을 하려는 형세이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금 3일은 휴교를 선언하고 3, 2, 1학년 생도 전부를 집으로 돌려 보낸 후 4년생의 행동 여하를 감시하는 중인데 장차 이 사건은 여하히 진전될는지 자못 주목 중이다.[21]

부내 동덕여고보의 동요 사건은 그후 점점 확대되어 작(昨) 5일은 4년생 일동이 지리, 재봉, 영어 강사의 배척과 지난번에 퇴학 처분한 임순득(任淳得) 양 외 1명의 복교 조건 등을 교무 당국에 제출하고 맹휴를 선언하였는데 동 교무 당국에서 학생들의 요건은 조금도 ○○할 수 없다 하여 자못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금 6일은 일반 학생에게 학부형 대동으로 등교치 아니하면 단연 처분을 하겠다는 통고를 발하였다고 한다.[22]

학교에서 독서회를 꾸린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앞뒤를 맞춰 보면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와 교사 이관술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임택재는 일본의 야마구찌 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돌아온 후, 1932년 10월 경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입학할 준비로 서울에 와서 이관술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33년 1월 이관술이 '반제동맹 사건'으로 검거될 때 임택재도 같이 검거되었다. 이때 동덕여고보의 4학년이었던 이경선도 같이 검거되었으나 풀려 나와 이경선은 3월에 졸업을 했다. 추측컨대 임순득도 같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온 것 같고, 그 뒤 4학년에 진학하여 독서회를 꾸리다가 다시 7월 전후 피검되었던 것 같다. 역시 재판에 회부될 만한 특별한 혐의점은 없이 풀려났으나 학교측에서는 퇴학을 시켰고 이것에 반발하여 임순득

21) 「동덕여고보 4년생 동요- 출학생에 동정하여, 학교 당국은 휴교 선언-」, 매일신보 1933.7.4.

22) 「동덕여교 분규 - 학교측 태도 의연 강경하여, 최후적 등교 통고-」, 매일신보 1933.7.7.

의 학교 친구들이 맹휴를 일으켰지만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이미 1933년 1월에 체포된 이관술은 교사직에서 쫓겨 났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1933년 7월 동덕여고보에서 퇴학 당한 이후 임순득이 처녀작「일요일」을 1937년 2월 조선문학에 발표할 때까지 3년여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1934년 1월 이재유를 검거한 일제의 경찰이 그린 '조선공산당재건 경성트로이카' 의 조직표[23]에는 임순득이 오빠 임택재가 중심이 된 '반제동맹' 의 하부에 '여상(女商)' 의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시기 여상이라면 사립 경성여자상업학교를 가리키는 것인데, 임순득이 동덕여고보를 퇴학당한 뒤 다시 경성여상에 편입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임순득의 오빠 임택재와 임순득의 동덕여고보 동문들의 궤적을 보면서 당시 임순득이 처했던 환경을 추측할 수는 있다. 1933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오빠 임택재는 이재유 그룹과 연결되어 1934년 3월 '미야께 교수 사건'[24]에 연루, 다시 체포되었다. 오빠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1935년 12월 말이니, 계속 서울에 있으면서 옥바라지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빠 임택재는 1935년 말 집행 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이재유 그룹과 연관을 가지면서 활동했던 것 같다.

임순득의 동덕여고보 동문인 박진홍, 이순금, 이경선, 이종희 등은 이 시기 여공이 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경찰서와 감옥, 재판정을 들락날락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순금은 1934년 1월 경성고무공장 여공

23) 김경일,『이재유 연구』, p.47.

24) '미야께 교수 사건' 이란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일본인 미야께가 이재유를 숨겨주었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이재유는 일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1934년 4월 탈출하여 미야께 교수의 사택에 숨어 있었다. 5월 21일 미야께 교수가 체포될 때 탈출하여 다시 검거를 피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의 조직활동을 펴다가 검거되어 1937년 7월에야 출옥한다. 검거되기 전 반 년 간 이재유와 동거했다고 한다. 또 한번의 검거 사건을 겪은 뒤 이순금은 지하로 잠적하여 '경성 콤그룹' 활동을 벌였다. 박진홍은 1933년 11월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뒤, 1934년 7월부터 피신 중인 이재유와 동거하다가 1935년 1월 용산의 노동조합 조직 활동과 관련 검거되어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 1937년 5월 출옥했다. 이 뒤로도 박진홍은 두 번 더 검거되어 형을 살고 1944년 10월 출옥한 뒤, 1944년 11월 국문학자이던 김태준과 함께 조선을 탈출하여 연안의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망명한다. 이경선은 1933년 10월 경부터 이재유 그룹에 연결되어 숙명여고보 독서회도 지도했고, 조선직물회사 인천공장에 여공으로 취직, 활동하다가 역시 검거되었다. 이종희는 1933년 별표고무공장, 서울고무, 종연 방직의 노동자 파업에 관여했으며, 1936년 6월 이후에는 만주 신경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고 1937년 3월 내몽고 지방에서 검거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여러 구성원들이 체포, 검거되는 상황에서도 이재유는 경찰서를 두번이나 탈출하면서 지하 활동을 계속하다가 1936년 12월 말에 검거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재유는 '전향'의 물결이 몰아치던 '암흑기'에 선고받은 형을 다 채우고도, '보호관찰법'에 걸려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가 1944년 10월에 옥사했다. 이관술은 1934년 3월 가출옥한 뒤 1941년 1월 검거될 때까지 지하로 잠적하여 계속 사회 운동을 벌였고 1942년 경 석방된 후에도 계속 지하 활동을 펼치다가 해방을 맞았다. 그의 동덕여고보 시절 제자였던 여성들도 유사하게 활동을 계속했다.[25]

이러한 임순득의 사회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그의 등단작인 소설 「일요일」을 읽으면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은 호흡으로 쓰여 있음을 감지한다.

---

25) 이순금, 박진홍, 이경선 세 사람은 모두 해방 후 1946년에 결성된 조선부녀총동맹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3. 임순득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일요일」

임순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작가와 평론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임순득이 작품을 들고 문단에 나선 1937년이란 일제의 조선 통치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시기이다. 1936년 8월 26일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천명한 조선 통치의 방침은 '국체명징(國體明徵), 선만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倂進), 서정쇄신(庶政刷新)' 이었다. 요컨대 조선 민족의 민족의식을 말살함으로써 이들을 황민화하고 세계 및 동아 정세에 감하여 반도를 병참기지화함으로써 대륙에 진출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미나미는 황민화 운동 및 수탈 행위를 전개했던 것이다.[26]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 임순득은 작가로 나선 것이다. 그 뒤에 발표한 평론 「창작과 태도」에서 임순득은 위기의 시대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생활 감정 속에서 풀어내는 문학은 자신에게 여가 선용이나 딜레땅티즘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일생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27] 그의 등단작 「일요일」은 미나미 총독 통치 시기에 벌어질 어려움을 여성 지식인의 섬세한 감각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임순득의 작품 세계에 일관되는 것이다.

1) 시대의 억압에 맞서는 정신

「일요일」에서 신문사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는 강혜영은 모처럼 맞은

---

26) 임종국, 『친일문학론』(민족문제연구소, 2002), pp.23~25.

27) 1937년경 박진홍을 만난 인정식이 그녀의 실천적 경험을 소재로 하여 위축된 조선 무산 대중을 자각시켜 프롤레타리아 여류작가로서 혁명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김경일, 『이재유 연구』, p.262. 어쩌면 임순득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한다. "요새 읽기 시작한 에렌부르크의 소설이나 마저 읽을까? 성북동에 나가서 스케치나 한 장 그려볼까? 원남동 사촌 동생이나 데리고 책점이나 돌아다녀 볼까?" 고민하다가 감옥에 있는 애인 윤호의 옷을 빨기로 하고 집에 머무른다.

같이 산책하자고 찾아온 여학교 시절의 친구들은 윤호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 "그까짓건 세탁쟁이에게 맡기지, 이렇게 좋은 날 품팔아 가며 빨게 무어람!"이라고 오히려 혜영이를 조소한다. 그 다음 함께 차나 마시러 가자고 찾아온 고향 동무는 혜영이의 심리를 이해하고 함께 우울해 한다. "모처럼 일요일에 가벼운 기분으로 차 한 잔 마시려 가려는 마음을 안 주는 '때'의 무게에 대하여 조그만 반항"을 함께 했지만 그 친구도 무력하게 그냥 돌아간다. 그 다음 저녁 무렵이 되어 영화나 보러 가자고 찾아온 사람은 "진실한 생활 태도에서 물러서는 사람"인 윤호의 친구다. "할 수 없다는 듯이 마음에 대한 변호의 여지를 조금씩은 남겨놓고 또 달리 생활이 세워질 것같이 믿으려 하면서 이대로의 사회 형태의 문화적 기분만을 해면처럼 섣불리 흡수하려는 꼴"에 혜영이는 반발을 느낀다. 조소, 연민, 회피, 이런 것들을 모두 물리쳤지만 혜영이는 자기 회의에 빠져든다. 무력한 존재로서, "이것도 저것도 모두다 목에 잠긴 가래침을 뱉듯이 뱉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일요일」은 외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만만치 않은 지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를 갖춘 소설이다. 1935년 카프가 해산 당하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후일담 소설 같은 것이 많이 나왔다. 그 후일담들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쪽으로 쉽게 과거를 부정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임순득의 소설은 과거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현재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순득에게 1930년대 전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과거는 1930년대 후반에는 지하 운동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운동과 운동에 대한 믿음은 감옥에 있는 윤호로 상징된다. 혜영이는 윤호를 계속 사랑하는 자신의 입장을 '낡은 이데올로기'라고 조소하는 사람들은

'소금쟁이의 종족' 이라고 생각한다.

소금쟁이는 흐르는 물 위에서는 결코 돌지 않는다. 거울같이 잔잔한 물이겠지만 생동하는 물결 있는 흐르는 물 위에서는 그 쾌활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맴돌이를 못한다. 물의 깊이를 모른다. 흐름의 정신과 육체를 모른다. 안정된 평면이 현존하면 그만이다. 소금쟁이의 의욕이란 안온한 순간에 대한 욕심 뿐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표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역사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을 역설하는 소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이 '물의 깊이' 를 모르고 안온한 순간에 대한 욕심만 있는, '전향' 하는 세태를 향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또한 혜영이가 여러 지인들의 출몰로 마음이 흔들릴 때 떠올리는 오빠의 편지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 있고 그러한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기에 혜영이의 갈등과 결단은 현실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산한 가게 머리에 앉아서 밤이면 갈피없는 눈으로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하늘을 들여다 본다. 황량한 시골 조고만한 읍의 저녁을 무엇이나 소리 들릴까 하고 무엇이나 발소리가 들릴까 하고 ……. 저 하늘에서 먼 나라의 요란한 음향과 폭풍과 멀리는 해조음이 행여 날아 내릴까 하고 ……. 혜영아, 하이네의 카민 위에 놓아둔 조개도 들물이 밀려오는 해안의 시각에는 거품을 내어 사락사락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였다. 이것은 하이네의 시적으로 형상된 말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젊은 이 내가, 장식용의 정물(靜物)만도 못하지……? 누구나 입밖으로 소리내어서 그렇게 불러주지는 않지만 캄캄한 어둠은 갈피없는 눈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게 생각켜진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괴감으로 자신을 장식용의 정물만도 못한

존재라고 느끼는 비애, 그러면서도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거기에 호응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 자학하지만 좌절로는 가지 않는 정신 세계가 임순득의 소설에는 있다. 임순득이 느끼는 물의 깊이란 그가 여고보 시절에 몸담았고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관술과 이재유 그룹의 활동가들의 조직활동이 있었기에 상투적인 비유나 주관적인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감의 묘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2)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 비판

「일요일」에서 윤호와 혜영의 관계에 대한 묘사 역시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보면 혜영이는 윤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감옥에서 내어온 헌옷을 빨기도 하고 결말에서는 윤호에게 넣어줄 털실 스웨터를 짜는 것으로 자신을 다잡는다. '하우스 키퍼'의 역할이다. 그러면서도 혜영이는 그것이 윤호와의 대등한 관계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 될 수 있으면 그 고생을 나누어 하고 싶으리 만치 아끼는 윤호를 그런 곳에 남겨 놓고 자기 혼자 계절의 변화를 즐길 만한 마음은 추호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구나 윤호는 그의 생활의 표식이었다. (……) 윤호라는 이름만에서도 혜영이는 마음의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것은 혜영이에게 윤호와 대등한 인격으로서 깎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러한 감정은 거리낌없이 자기에게 허락할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생활이 있는가? 이렇게 그는 윤호를 중심으로 하고 각양각색의 동심원을 그리는 것이었다.

남성인 윤호를 여성인 혜영이가 '생활의 표식'으로 삼고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 서로의 대등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랑에 휘둘리고 사랑하는 남성에게 순종하는 희생하는 여성 — 임순득이 여러 곳에서 힘주어 비판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상 — 과 다르다는 것을 소설은 힘주어 말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쓰여지던 당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남성종속성에 대한 논란과 자기 비판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에서 스승이고 남편이었던 남성들의 존재에 문제를 느낀 여성들의 주체 세우기가 힘겹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여성운동가가 직접 사회운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운동 전선에서도 여전히 보조적인 '하우스 키퍼' —활동가들의 생활과 연락을 위해 마련한 집을 지키고 살림을 꾸려 가는 역할—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겸해야 하는 것, 인간의 해방을 말하면서도 성별 분업과 여성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고착되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운동의 실제에서도 그러했던 것 같다. 일제의 검거를 피해 지하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재유는 이순금과, 이순금이 검거된 뒤에는 또 박진홍과 동거하면서 일제의 검거를 피했다. 박진홍도 검거되어 옥중에서 출산한 뒤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게 된다. 그밖에도 당시 신문에서는 활동가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에서 침식을 제공한 여성들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이관술의 아내가 된 박선숙(朴善淑, 1909 - ?)은 서울 이화동에서 담배나 과자 가게 같은 것을 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종사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지트를 제공했다[28]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떠맡게 되는 것은 인간해방을 꿈꾸는 활동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역할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의 운동과 조직 구조, 거기에 안주하는 여성 자신의 안일성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 활동가와의 차이를 느꼈을 것이다.[29] 남성을

28)「여자 삼대 쓸쓸한 집, 역연한 생활 고투, 이관술과의 관계 회피하려는 박선숙과의 문답기」,『매일신보』, 1937.7.30.

29) 1937년 경 "박진홍은 이재유가 연애관계를 부인하고 대중의 신망을 획득하려고 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연애관계란 이재유를 둘러싸고 이순금과 박진홍 자신 사이에 조성되었던 삼각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이관술에 의해서도 비판받았다." (김경일,『이재유 연구』, p.258)고 한다. 비슷한 시

향해서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에 천성처럼 배어버린 습관에 칼날을 세우는 것은 개성을 가진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여성의 큰 과제였다.

그러면서도 등단작 「일요일」에서는 아직 대안적 삶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빨래하기에서 시작하여 스웨터 짜기에서 끝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과 반성은 이후 임순득의 평론과 소설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평론에서는 여성문학을 '여류문학'으로 '주변화'시키는 남성 중심의 문단과 그렇게 주어진 '여류작가'에 안주하는 여성작가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된다. 소설에서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여성의 주체 세우기에 초점이 모아진다. 특히 「대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의 주체 세우기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제 말기 엄혹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지식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3) 민족문제의 인식과 민족의 발견

「일요일」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대목은 이 작품이 스쳐 지나가면서이긴 하지만 '민족의 비애'를 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저녁을 일찍 먹은 혜영이는 겨우 하루를 넘긴 안도와 슬픔을 넘기며 들창문을 열어제치고 고랫재 냄새가 배어 있는 골목길을 우두커니 내다보았다. 어린애들이 와와 소리를 치며 몰려다닌다. 그러나 노래 부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노래도 없는 어린이들이로구나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고는 그것이 한없는 민족의 비애를 예감케 하는 것 같은 과장된 생각이 제쳐도 제쳐도 끈적끈적 달라붙었다.

기 박진홍은 이순금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기도 하는데 "이순금이 결혼하면 자신도 적당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함으로써 이재유를 둘러 싼 삼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김경일, 「이재유 연구」, p.263)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보아도 당시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 남성 활동가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뛰어 다니며 놀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민족의 비애'를 '예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표현이다. '과장된 생각' 이라고 그 비애를 무마하는 듯한 서술을 뒷동달아 놀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과장이고 기우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기 얼마 전인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말소 사건을 기억한다면 민족의 비애라는 말속에 담겨 있는 울림은 매우 절박한 것이다. 게다가 그 예감은 아무리 '제쳐도 끈적 끈적 달라 붙' 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사회주의자의 글 속에서 '민족' 이란 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민족적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한 시절, '보수적' 이라는 딱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그런 만큼 임순득이 첫 작품에서 이 말을, 이 느낌을 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후의 작업에서 그는 계속, 그리고 더 강하게 이것을 표명하고 있다. 「일요일」을 쓴 다음 발표한 임순득의 최초의 평론 「여류작가의 지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 여기에서 내가 우리라고 칭하는 것은 (……) 각각의 세계관이나 제작적(制作的) 유파(類派)의 상위(相違)를 간과하고 목전(目前)의 단일(單一)한 악(惡)의 장애(障碍)와 싸우며 진정한 문화의 일익(一翼) -- 문화을 건설하려는 갑, 을, 병, 정……을 의미한다. (2-3회)

세계관이나 유파를 넘어서서 '단일한 악' 과 싸우며 '진정한 문화' 를 건설한다는 것은 제7차 코민테른에서 결정된 바, 인민전선, 혹은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전선에 관한 테제를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식민지에서는 계급 노선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전선의 형성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임순득은 「작은 페스탈로치」라는 수필에서도 시골에서 교사를 하다가 서

울에 다니러 온 친구를 통해 봉산탈춤과 고려자기를 새로 발견한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 있는 데는 말야 저 봉산탈춤인가 뭣인가 요즈음 갑자기 유명해진 거 있잖어[30] 그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단오날 밤에 횃불을 피워 놓고 그 속에서 노는데 참 뭐라고 할 수 없이 좋아.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이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한데 엉키어 있는 그 융합된 미란 뭐라면 좋을까." 그는 소견머리 없는 보수주의자처럼 '조선 것'이라는 것을 억지로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것이 비록 거칠고 소박할지언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것을 표현하는 데 그 미(美)를 보았다는 것이다. (……) 내가 모처럼 서울 올라온 벗을 대접한다 하여 영화관에 안내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 오라 하면서 나를 덕수궁 미술관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나는 두 가지의 사실을 경험했다. 하나는 부끄러운 말이나 내 자신 처음으로 고려자기란 것을 본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고려자기의 좋은 점을 선전하는 것을 다만 관념적으로 내 임의로 처리하고 임의의 관념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 관념은 실물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을 느꼈다.

조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 — 궁핍한 현실로부터 막연한 과거로의 낭만적 도피 — 를 경계하면서 그것의 현실 연관성을 묻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봉산탈춤에 남아 있는 공동체적인 정서, 고려자

30) 봉산탈춤은 1937년 5월 조선민속학회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 '향토 무용 민요 대회'에서 시연회를 가져 대 성황을 거두었고 1938년 5월에는 '조선향토예술대회'의 첫 작품으로 공연되었다. "인멸에서 부활로 찬연히 빛난 민예 대회"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1938년 9월에는 사리원에서 봉산탈춤 보존회가 창립되기도 했다. 봉산탈춤은 뒤에 194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보존해야할 전통 1호로 지정되었다. 1937년의 발견은 '조선적'인 것의 발견, 조선학 붐의 한 자락인 것 같고, 1941년의 것은 '지방문화'로서 관제 민속이 전통으로 가는 길목을 보여준다.

기가 도달한 문화적 수준에 대한 긍지 같은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서술되지만 이것은 그가 일제 말기 '친일'의 대세 속에서 버티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가치의 발견은 임순득의 지적 기반으로서의 이재유의 운동 노선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1930년대 각종 사회운동가들 중에서 이재유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향이었다. 민족 문제에 대한 이재유의 인식은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대다수는 식민지하의 민족적 차별에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유가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현실적인 민족주의의 무능력과 한계에 촉발되어 그것을 민족개량주의로 매도하면서 계급주의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반면에 민족혁명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1930년대 비합법 운동자들의 대부분이 계급문제를 중시하고 민족문제를 등한시했던 사실에 비하면 민족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대 최고의 혁명가라는 명성에 걸맞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혁명적이었던 만큼이나 민족적이었다."[31] 이 점에서도 임순득 문학의 출발점이 1930년대 전반에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던 민족해방운동의 지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 여성 지식인의 자화상과 감상주의 비판

「일요일」을 비롯해서 해방전 임순득 소설의 주인공 -- 화자는 여성지식인이다. 「일요일」에서 혜영이는 계속 책을 읽고 있다. 이미 에렌베르크의 책을 읽던 중이었으며, 서점에 가는 것으로 일요일을 보낼까 궁리도 하고 결국은 책을 읽으며 지내기로 한다. 책은 그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약"이기도 했다. 책 읽기는 다음에 살펴볼 「대모」의 중요한 소재이다. 친구인 여아는 스피노자를 되새기면서 슈니츨러의 책을 읽는다. 시골에서 조

31) 김경일, 『이재유 연구』, pp.272~273.

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혜영이의 오빠는 편지에서 하이네를 인용한다. 그밖에도 임순득의 평론에는 서구 문학 전통에 대한 언급이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것들은 작가 임순득의 지적 교양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성은 단지 박식이 아니라 사물을 취사선택하는 시야를 제공한다. 지성은 박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게 한다. 소박한 감상이나 안이한 타협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성의 힘이다. 논리적인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지식인적 면모를 가진 화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소녀적인 '감상'에 빠지는 것이다. 감성에서 연유하는 자신의 '감상'에 거리를 두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임순득은 자기 자신과 동료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가 '여류작가'를 비판하는 것도 이 점에 있다.

평론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거듭 비판하고 있으며, 소설에서도 제일 경계하는 것이 그 '감상'이다. 「대모」에서 작품의 중심이 되는 두 축의 하나이며, 또다른 일본어 소설 「달밤의 대화」의 주제가 그런 '감상'에 대한 비판이다. 「달밤의 대화」는 시골에 살게 된 순희가 모처럼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까지 나갔다가 되돌아 오는 달밤의 여정을 묘사한 짧은 소설이다. 순희는 마을 소년 순동이에게 짐을 지워 기차역으로 나가면서 온갖 궁리를 한다. 달밤에는 지게를 지고 가는 순동이도 신비하게 보일 지경이다.순동이와 함께 달밤을 걸어가면서 순동이의 피리 소리, 순동이가 꺾어다 주는 국화향기에 취해서 순동이와의 낭만적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기차역에 도착해서 밝은 불빛 속에서 생활 속의 사람들을 보면서, 순동이 역시 그렇게 생활의 무게에 허덕이는 시골의 한 청년임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그리고 전에 친구에게 약품, 운동화, 연료 등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만한 방도를 궁리했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는 '감상'일 뿐이라고 비판받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 친구는 의사가 되려다가 귀를 다쳤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약사가 되어 있는 친구이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스스로 연민하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친구이다. 감상에

서 깨어난 순희는 서울 여행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서울 갈 여비를 보태어 순동이를 공부시키는 데 도와주기로 한다.

> 순희의 어딘가에 잠재해 있는 낭만성은 평화롭고 목가적인 안식과 쉼터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생활은 미소지을 수 없는 폭풍이었다.(.....)고 급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희는 자기 극복의 과정에서 오는 복잡한 감동을 느끼고 오열을 하듯이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계몽이라는 진실의 언어가 뛰쳐 나왔다.

「달밤의 대화」 마지막은 순희가 마을로 돌아오면서 순동이에게 자기의 덧옷을 걸쳐주려고 하였지만 순동이가 지고 있는 지게가 방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끝까지 '감상'에 대한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어 소설 「대모」의 문제성

「대모」는 사촌동생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나와 사촌 동생의 관계가 한 축이고 나와 친구 고려아(高呂娥)와의 관계가 또 한 축이다. 사촌 누나인 나에게 고뇌 어린 애정을 비치던 사촌 동생은 평범한 여성과 결혼하여 시골의 음악 선생으로 가 있다. 그 동생이 나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다. 사촌 동생은 나에게 단순한 오누이 사이의 감정을 넘어선 비밀스런 애정의 감정을 비추지만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관음상 탁본을 선물로 보냈더니 자기 아내는 커피잔 세트 선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그 탁본을 누나 보듯 하겠다고 오히려 더 불행감을 호소한다. 사촌 동생의 이런 비밀스런 애정 고백은 시대의 고뇌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태어날 조카의 이름을 짓느라 소설가인 친구 고려아와 의논한다. 여자 아이라면 굴원(屈原)이 「초사(楚辭)」에서 지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풀 이름을 따서 혜원(蕙媛)으로, 남자 아이라면 유대 민족의 해방자 모세(毛世)와 굴원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세원(世原)으로 짓기로 한다. 나와 려아는 평론가와 작가로서 문학론을 펼친다. 나는 '여류작가' 들의 감상주의를 비난하고 려아는 그것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량 없음이라고 항변한다. 작품의 결말은 내가 아량없음을 자기 비판하고 사촌조카의 백일 잔치에 맞춰 일상적인 생활의 선물을 가지고 동생의 집을 방문하리라는 것으로 맺는다.

1942년 10월에 발표된 이 작품은 평론가인 나와 작가인 고려아 두 여성의 대화를 통해 일제의 '창씨개명' 과 당시 남성 중심 문단에서의 '여류작가' 에 대한 비판이라는 칼의 양날을 세우면서 여성문학의 방향까지 모색하는, 식민지 여성작가로서의 자의식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수작이다. 화자인 '나' 와 친구인 '려아' 는 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임순득 자신의 두 분신으로 볼 수 있다.

1) 일본어로 쓰여진 것의 의미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은 모두 3편으로 1942년과 1943년에 발표되었다. 194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된 뒤, 1941년에는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었으니, 기존의 여러 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기' 라고 불러 왔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글로 작품활동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적인 것처럼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살펴보면 사용된 언어가 무엇이었느냐가 이 시기 문학의 성격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로 발표된 작품이라도 적극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일본어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의 민족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1941년 이후에도 한글로 신문과 잡지가 간행되고 작품집들도 다수 출간

되었다. 한꺼번에 언어 생활을 규제하기도 힘들거니와 일본어 해독율이 20%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도 한글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식민지 조선의 일반 민중들에게 식민통치에 협력할 것을 선전하고 설득하는 글들은 여전히 한글로 많이 쓰여졌다.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해방되는 날까지 한글로 발행된 것이 이 사정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일본어로 썼더라도 식민 통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글들도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시기 일본어와 한글 양쪽으로 창작을 하면서 식민 통치에 저항을 한 김사량의 문학 활동을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모」를 비롯한 임순득의 일본어 작품들은 비록 일본어로 쓰여졌지만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을 꾀하는 작품으로 한국근대문학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2) '창씨 개명'에 대한 비판

소설 「대모」의 주 내용은 사촌 조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소설의 원제목인 '나즈케오야(名付親)'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본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임순득은 해방 후의 소설 「누나」(1948.12)에서 '대모(代母)'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대모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1943년에 일본어로 소설을 쓰면서 임순득이 어느 쪽 용어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품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문제를 소재로 하여, 이름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정체성과 직결된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일제가 실시한 '창씨개명' 정책과 거기에 앞장서서 호응하고 나선 일부 조선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는 1940년 2월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창씨개명' 정책을 실시한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으로서의 귀속의식을 소멸시키고 일본에 동화시키는 소

위 '내선일체의 최고단계'의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정치적 배경의 하나는 역사적 전통과 혈연의식으로 유지되어 온 조선의 가족 제도를 서서히 일본화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징병제 실시를 겨냥하여 조선군인을 일본군인과 똑 같게 황민화하려는 것이었다.[32] 일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육군지원병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조선의 호적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전쟁 동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선의 문중을 없애고 일본식의 '가(家)'를 확립하려면[33], 그 가를 대표하는 '씨'가 있어야 한다.[34] 또한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생각했을 때 일사불란과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는 구성원이 동질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식 씨를 새로 만들도록 요구한 것이다. '창씨'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좁은 의미에서의 '군사적 동원을 넘어 스스로 조선인으로서의 최후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게 함으로써 식민지배의 최종 단계인 '정신의 식민화'까지 완벽하게 실현시키려 하였다.[35] 일본식 씨에 어울리도록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는 것이 '개명'이었다. 그리고 굳이 새로운 씨를 만들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의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존의 성을 일본식으로 읽는 것으로 씨를 삼도록 했다. 본인이 창씨를 해서 신고를 했든 그러지 않았든 본래의 성은 '성 및 본관'이라는 항목으로 호적의 아래 층위에 위치시킨 것이 소위 창씨개명이다.

식민지적 근대화의 수혜자인 공무원, 상인 언론 문필 종사자들은 창씨개

32) 김영달,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의 제도」, 『창씨개명』(학민사, 1994), p.50.

33) 그 일환으로 식민지 시대 호주제도가 도입되었고 그것이 '전통'으로 왜곡되어 아직도 이 땅에서 호주제 폐지가 여성운동의 중요과제가 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4) 한 예로 일본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한 '가'가 되고 그 '가'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씨를 가져야 하니 남편이 처가에 데릴 사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남편의 '씨'를 '가'의 것으로 하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창씨개명정책과 함께 이것이 도입 시행되었다. 솔선수범하여 창씨개명한 이광수의 경우 자신은 香山光郎으로 부인 허영숙은 香山英子로 창씨개명했다.

35)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1999), pp.73-74.

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리고 그냥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자신의 성이 일본식 훈으로 불러 씨가 되는 (金은 카네로 南은 미나미로 하는 식이다) '개씨'를 당한 셈이다.

「대모」에서는 이런 풍조를 빗대어 이름을 둘러싼 여러 고민들을 보여준다. 이름 짓기의 어려움, 소중함은 발자크가 구두 가게 이름을 짓는데도 며칠 동안 파리 시내의 간판을 보고 다녔다는 삽화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름 글자를 선택하는 데도 분명한 방향이 있다. 작중 화자는 한자 사전도 꺼내 보고 인명이 나오는 중국 책을 이것저것 뒤져보기도 하고, "고전에 조예가 깊은 홍명희 선생님을 찾아가 작명을 부탁해 볼까"라고까지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임순득이 굳이 홍명희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소설 쓰는 친구가 지은 주인공의 이름을 빌려 결국 혜원과 세원이라는 이름을 짓는다. 그 이름에는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 그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 즉 그 인간의 정체성이 담겨있다. 여자 아이 이름 혜원의 '혜' 자에는 굴원의 절개를 담았다. 남자 아이의 이름인 세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인 모세와 지조를 지키다 죽은 굴원의 정신을 담았다. 단 한 마디도 '창씨개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한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상징성과 이름에 빗대어 한 인간에게 기대하는 해방의 열망을 강렬하게 제시한 것이다.

3) '여류 작가'와 여성문학

그 이전 '여류작가'에 대해 남성 중심의 문단이 모든 여성 작가들을 '여류 작가'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 자신 그 여류작가라는 지위를 편안해 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평문을 3편이나 발표했던 임순득[36]은 이제 스스로 소설가로 나서 소설 속에서 다시 '여류작가' 문제에 대한 논

3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경,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pp.223~246.

의를 전개한다. 평론가인 나는 작가 지망생인 친구 고려아를 향해 "스피노자를 그렇게 표현한 젊은 철학도의 말을 아름다운 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너 자신이 소위 여류작가들이 좋아하는 여자주인공 그대로야. 과연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은 인간의 생애가 있을까? 그렇게 지상성이 없는……" "여류작가적인 모든 취미와 제스츄어"를 그만두라고 충고한다. '나'의 입장을 논리적인 말로 풀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우리는 여류작가로 전락되어진 부인작가를 문제삼을 때 부인작가를 위요(圍繞)하는 객관적 제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음을 보는 동시에 부인작가 자신이 그들의 서러운 운명을 양성(釀成)한 것에 상도(想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류작가선집』을 들추어볼 때 열다섯 사람의 작품은 모두가 미미한 것 쪼그마한 것, 너무나 도도한 사회의 물결로 벗어난 강변의 어여쁜 조약돌만이 취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왜소한 정신이나 노리는 세계의 것이요, 결코 부인작가의 특징적인 세계의 것은 아니다. (……) 보드라운 미풍, 가을 하늘의 코스모스의 탄식보다도 쩡쩡 소리를 내는 압록강의 해빙, 그에 뒤잇는 부풀어 오른 수량(水量), 한여름 창궁(蒼穹)의 굉음(轟音), 폭풍, 삭풍(朔風)에 항거하는 송백(松柏), 이것들이 더 많이 욕망되는 바이다.[37]

그러나 임순득이 여성작가가 해야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소연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우리들에게 하소연을 빼봐. 아니 억제해 봐. 자폭하고 말 걸?"이라는 려아의 말이라든지 "그녀의 슬픔을 들어주지 않으면 왠지 평생동안 책임감을 느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나의 말은 여성문학이 여성에 대해서 가지는 치유 기능에 대해 임순득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 자신의 말을 뱉어 내고, 들어주고,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여성문학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

37) 임순득, 「여류작가의 지위」, 『조선일보』 1937. 6.30-7.4.

4)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

「대모」에서 내가 조카에게 붙여주려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혜원'이 살아가는 곳인 "현대 조선"은 여성이 "자립하기에 가장 조건이 나쁜 환경"이다. 임순득이 생각하기에 이 시기 조선 여성의 절대의 화두는 '자립'이다. 그리고 그 자립을 위해서는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려아의 소설 속 여주인공 혜원이 사랑하는 남자인 "신격화되지 않은 모세와 거만하지 않은 굴원"은 작가인 임순득의 이상적 남성상이기도 했을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에 종사하면서 지조를 지키는 인물이란 임순득과 그 주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필요조건이다. 아마도 1940년대 전반, 일제의 억압이 극심하던 세월에 전향을 거부하고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던 이재유나 지하 활동을 계속했던 이관술이 그런 인물일 것이다. 식민지에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해방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서부터 임순득의 일관된 입장이며 그는 일제 시대 끝까지 식민주의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더 유심히 읽어야 할 것은 '신격화되지 않은', '거만하지 않은' 이라는 측면이다.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지고 강건하게 해방운동을 벌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옳거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무오류의 신일 수는 없다는 것, 스스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되 자신의 지조를 내세워 남을 경멸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런 조건을 갖춘 남자인 '세원'이 현실에 있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 모세나 굴원 같은 인물도 쉽지 않은 당시의 상황과 운동 풍토에서 게다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인격이라니. 여성작가로서 임순득의 날카로움이 빛나는 대목이다. 진정한 인간 해방은 여성 해방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란다.

이 지점이 여성작가로서 임순득의 득의의 경지라고 생각한다. 신격화되지 않고 거만하지 않은 남자는 그들이 모세이고 굴원이라는 필요조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체현되어야 할 해방된 인간으로서의 충분조건이며, 그것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구현되거나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나'의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대모」에서 려아가 못다한 스피노자와 사과의 이야기를 연결하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 스피노자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에도 미래를 위한,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의 소유자,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은 인간', 스피노자인 것이다. '파란 가을 하늘' 이미지는 이미 소설 「일요일」에서도 한번 나왔다.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 있는 윤호가 "내 마음대로 옷 빛깔을 해 입어도 괜찮다면 코발트 청색으로 해 입고 싶소. 활짝 개인 하늘빛으로 내 몸을 꾸미고 싶고"라는 말을 기억하고 혜영이가 그를 위해 코발트색 털실로 스웨터를 뜨겠다는 부분이다. 「일요일」에서는 긍정적으로만 그려졌던 이런 남성 인물에 대해 「대모」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5년 사이에 작가 임순득은 여성작가와 평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 나온 것 같다.

앞장에서 이순금과 박진홍 그리고 이재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들 여성 뿐 아니라 1930년대 사회운동에 나섰던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부딪혔던 중요한 문제를 임순득은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나 빈민 또는 인종적 정의를 위하여 목청을 높이며 사회 정의 운동에 참여하는 급진적 사상가들" 중에도 "잔인하고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부정한 남성들"이 상당수 있었으니 "젠더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보수파와 다를 바 없는 성차별주의자들이었"고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과의 관계에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여성해방 운동의 촉매제로 이용했다고 하는 서구 여성운동의 경험[38]은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거기에 더해 또 눈여겨 보아야 하는 '나'의 문제 제기는 그런 인간이 존재하기도 쉽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냐보다는 한 남자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생활을 찾지 못하는 여성의 의존성에 관한 것이다.

38) Bell Hooks, *Feminism for Everybody*, 박정애 역, 『행복한 페미니즘』(백년글사랑, 2002), p.151.

지난 날의 연인에 대해 '파란 하늘과 같은 인간'이었다고 이상화시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자세를 비판한다. 과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여성 자신의 주체적 입장, 정신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난 그저 괜찮은 여자들이 이미 유물이 되어 버린 과거의 애정관계에 대해 언제까지나 소중하고 아련한 생각을 품는 바로 그 포즈가 여자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허세라도 좋으니까 어째서 어깨를 펴고 의연하게 여자의 생활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흔히 말하는 여자의 프라이드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냐?

이렇게 작품에서든 평론에서든 여성 스스로가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에 안주하고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안이함을 가지고 있음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순득은 해방 후 쓴 소설 「딸과 어머니와」(1949.12) 같은 작품에서 "자기 내면의 성차별주의와 직면하지 않은 채 페미니스트의 깃발을 치켜든 여자들이 종종 다른 여자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페미니즘의 대의를 배신"[39]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이다. 「딸과 어머니와」에서 어머니는 해방을 맞이하여 딸의 어머니로서 '지극히 소박한 진보적인 사상'을 쉽게 받아들여 과부된 딸이 재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왕이면 총각을 만나묵은 시름을 잊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며느리감으로는 '헌 계집'을 용납할 수 없다고 펄펄 뛰며 의연히 보수사상을 견지한다. 결국 어머니는 딸의 설득에 자기 속의 성차별주의를 깨닫고 아들의 결혼을 용납한다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는데 일제 말기의 임순득의 여성문학이 도달한 지점을 짚어보면 해방 후의 흥분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이해가 된다.[40]

---

39) 위의 책, p.37.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순득은 평론가로서 일제 말기 남성 중심의 문단이 만들어낸 '여류문학'을 비판하고 여성작가 또한 남성들이 만들어준 '여류작가'의 공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방을 지향하는 '부인문학'을 건설하자는 여성문학이론을 주장했고 또한 소설가로서 작품 창작으로 자신의 이론을 실천했다.

등단 작품인 「일요일」에서부터 여성과 민족, 계급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시작한 임순득은 일본어 소설 「대모」에서 더 분명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일본어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대모」는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 여성문학이 지향해야할 목표로서의 여성의 자립과 인간해방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임순득의 작업은 193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특히 학생운동과 혁명적 노동운동이 배출한 여성활동가들의 경험을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임순득의 작품은 그 이전 여성 작가의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선배 작가 나혜석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임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 문제에 주된 관심을 쏟았고 강경애는 계급 문제의 틀 속에서 여성문제를 보았던 것과 비교하면 임순득의 작품은 계급문제를 포괄하는 민족해방의 문제와 여성 해방의 문제를 통합된 하나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여류문학'을 비판하고 '부인문학'을 강조한 것에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견의 극복과 여성 자신의 안이함에 대한 비판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런 입장에서 임순득은 동시대의 여성 작가 최정희의 작품이 표방하는 '모성'과 '여성성'이 가진 반여성주의와 그리하여 그것이 도달할 지도 모르는 반인간주의를 경계했다. 즉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관

40) 해방 후 임순득의 여성주의 소설에 대해서는 이상경, 앞의 책, pp.239~244 참고.

계 속의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어린 자식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해결하는 최정희식의 '모성'이란 자식을 핑계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방기하는 것이며, 자식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순득이 경계했던 것처럼 최정희는 일제 말기 일제의 식민주의에 협력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일본의 병사로 기꺼이 바칠 것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소설과 논설들을 다수 쓰는 길로 나갔던 것이다.[41]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식민지에서 여성의 해방이란 민족의 해방이란 대의 명분에 매몰되거나 부차적인 것일 수 없지만 민족해방과 분리되어 획득될 수도 없는 것임을 임순득의 문학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임순득은 일제 시대에 쓴 마지막 평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메마른 산야가 기름진 옥토로, 그 왜목(倭木)이 울창한 삼림 지대로 변해야 할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때는 "저 먼 하늘가에는 지상의 일체를 신뢰한 한 마리의 소리개가 한가히 맴을 쳐 나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소리개는 사람의 간을 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코카서스의 암벽에 매달린 프로메테우스의 희생도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사랑할 수 있음으로써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방의 꿈을 펼친다.[42]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 해방에의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때, 여성이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길에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주체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의 평론과 소설들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

■필자 : KAIST 교수

41) 최정희와 '군국의 어머니' 문제에 관해서는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한국여성연구소 편, 『페미니즘연구』 제2호(동녘, 2002)를 참고.
42)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 여류 작가론」, 『여성』, 1940.9.

Abstract

A Study on the Im, Soon-Duk's short story, "The Godmother" and Korean Women Literatures in the last year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Lee, Sang-Kyung

This article examines Im Sun Duk's works focusing on the problem of gender and nationalism in the colonial context. Though her works were published at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nvasion, they were not pro-Japanese at all while the other women writers tended to be pro-Japanese.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ne reason is that Im's works represented the Korean socialist women's experiences in 1930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such as student movement and revolutionary labor movement. The other reason is that her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her feminist literary theory. She criticized the contemporary 'lady literature(여류문학)' which is limited to feminity and women's space accepted by male patriarchal literature. Im argued that women's literature should face the oppressive reality of the colony to liberate women from the colonial oppression. Her stories as well as her theory explores the interrelation between gender and colonialism.

"Sunday" is Im's the first published short story. Its heroine sends private supplies to her lover in prison, who is arrested because of his

participation i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is work justifie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but has the limitation to represent its heroine as depending too much on her lover.

"The Godmother(대모)", even though written in Japanese, criticizes 'Chang-ssi-gae-myung'(창씨개명, the policy of exchanging Korean name to Japanese style). As godmother, the heroine names her nephew Sewon(세원), after Moses and Goolwon(Chinese poet) who are associated with national liberation. Here the female protagonist is more independent, thinking that a woman should not be subject to a man even if he is both a great thinker and a devoted activist.

Im supported the feminist literature theory and wrote several feminist short stories, such as "Sunday" and "The Godmother". In this works as well as her theory Im deals with gender as closely interrelated to nationalism. Her achievement lies in creating the feminist literature aspiring to national liberation, different from pro-Japanese 'lady literature.'